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진숙(Jinsook Choi)	학번	
이메일	lacken9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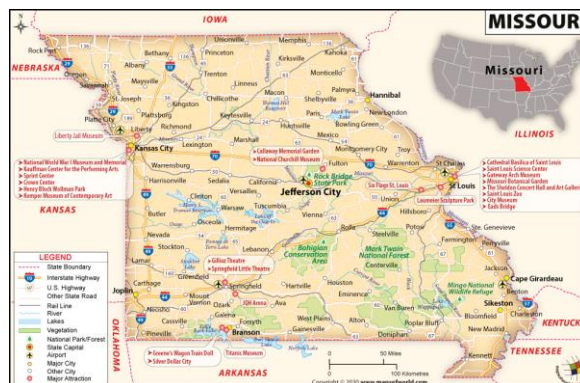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Truman School) / MPA	(국가) 미국
기 간	2021.1.19.~12.19.	[귀국일: 2021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1) 위치/인구

- Missouri주는미국인들이 흔히 “Midwest” 라고 부르는 미대륙의 중부에 위치하며, 줄여서 MO로 표기
- 대부분 평지이며 좋은 기후 및 토질로 인해 농업 및 축산업이 산업의 큰 비중 차지
- Truman School이 위치한 컬럼비아는 미주리 주에서 4번째로 큰 도시(St. Louis, Kansas City, Springfield, Columbia 순)이며, 지리적으로 미주리 주의 가운데에 위치
- Columbia Regional Airport가 위치하고, US 63, I70 등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주요 도시인 St. Louis, Kansas City가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
- 미주리 주의 수도는 Jefferson City로 컬럼비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
- 미주리 주의 인구는 약 6백만 명이며, 컬럼비아는 약 12만 명
- 2019년 현재, 컬럼비아의 인구는 백인 77%, 흑인 11%, 아시안 6%, 히스패닉 4%, 기타 2%로 구성되어 타 지역에 비해 백인의 숫자가 많은 편임
- 미주리 대학의 재학생은 약 3만 명으로, 미주리 대학은 컬럼비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미주리 대학은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고용 창출: 1st employer in Columbia)



Source: World Map

(2)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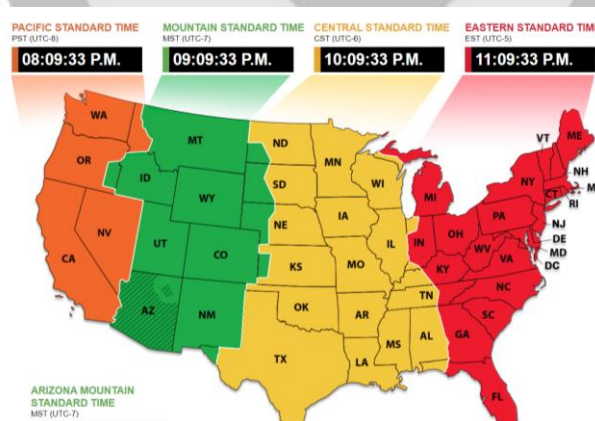
- 기독교가 강하고 보수적인 전통적 미국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볼 수 있음
- 미주리는 Republican이 많아 Red State(공화당 지지 주)이나, 지난 2020 대선에서 컬럼비아는 민주당을 지지하였음
- 컬럼비아는 대학도시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평균 연령이 낮아 Democrat이 미주리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3) 기후

- 미주리 컬럼비아의 기후는 4계절이 있고, 봄, 가을이 짧고 여름은 습도가 높고 겨울은 추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함
- 그러나 같은 계절내에도 기후차이가 심한 편임. 2021년 12월의 경우, 2~3일 정도 낮 기온 24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영하로 내려간 적도 있었음.
- 또한 햇빛이 강해서 낮에는 봄에도 덥고, 겨울에도 따뜻한 편임
- 일교차도 커서 여러 옷을 겹쳐 있을 필요가 있음

(4) 시간

- 여름은 저녁 8시까지 해가 떠있으나 겨울은 4시 반 정도에 해가 짐
- 대부분의 회사는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며 대중교통이 없고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하므로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이 많아지나, 중소도시이므로 큰 교통 정체는 없음
- 하절기에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긴 시간을 쓰는 Daylight Saving Time(DST)를 3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종료함
- 미국의 시간대는 크게 6개이나 미대륙에는 다음과 같이 4개가 있으며, 미주리 주는 Central Standard Time(CST)를 사용



Source: www.time.gov

(5) 생활

- 중소도시이나 월마트가 3개나 있어 컬럼비아 모든 지역에서 10분 내 도착 가능
- 수퍼는 Sam's Club(대용량 저렴, 제품군 다양하지 않음), Walmart(중소량 구매 가능, 제품군 다양), Aldi(소량 저렴), Moser's (다양한 육류 구매), Hong Kong Market(오리엔탈 마켓), Lee's Market(한인 수퍼) 등 다양하여 필요에 따라 구매 가능

- 외식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개인 식당은 다운타운에 많고 일부는 주택가 인근에 산재되어 있음
- 고기, 유제품 등 거의 모든 식재료가 한국의 1/2~1/3정도의 가격이나, 미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신선한 생선, 조개 등은 구하기 어려우며 냉동식품으로 대체
- 외식은 한국보다는 2배 이상 비싸고 음식가격의 15~20%(평균 18%)에 해당하는 팁을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외식비는 더 비쌈
- 의류는 한국에 비해 저렴하며 Marshall이나 Columbia Mall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며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St. Louis나 Kansas City의 아울렛을 이용하기도 함
- 주거비는 타도시에 비해 싼 편으로, 한국 유학생의 경우 월 렌트는 600~1,200불 정도를 일반적으로 지불함, 이외 Utility로 케이블, 인터넷, 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GMP가 선택하는 1년 과정 MPA는 Mid-career Program으로 3-5년의 업무수행 경력을 요구하며, 업무수행 경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arly Career Program에서 이수해야 하는 인턴십(Internship)이나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는 면제됨
- MPA는 원래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나, KDI School과는 MOU를 통해 KDI School에서 이수한 6학점을 인정해 주므로 24학점 이수로 MPA학위 취득이 가능함
- Mid-career Program의 필수과목(Core)은 5개로 다음과 같으며, 이 중 Research Method I, II는 KDI School 이수로 대체해 줘서 실제 필수 과목은 3개였음
 - ▶Public and Nonprofit Management (3 credits)
 - ▶Public Policy Processes and Strategies (3 credits)
 - ▶Research Methods and Inquiry in Public Affairs I (3 credits)
 - ▶Research Methods and Inquiry in Public Affairs II (3 credits)
 -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3 credits)
- 온라인(실시간, 녹화), 오프라인,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
- 전문 분야(Areas of Specialization)는 Public Management, Nonprofit Management, Public Policy 등 3개가 있음
- MPA/JD(로스쿨), MPA/MPH(Public Health), MPA/MHA(Health Administration)으로 Dual Degree가 가능
- 미국식 교육의 특징인 지식 전달 및 분석보다는 학생들의 관심 유도, 문제 접근 방식, 비판적 사고, 그룹 토론 등을 강조하므로, 미리 자료를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할 필요
- 일부 교수진은 체계적인 설명이나 주요 논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학생 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커리큘럼 변경이나 지연 등이 가끔 발생하여, 한국식 교육에 비해 산만하고 비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GMP는 1년간 8과목(2과목은 KDI School transfer)을 이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봄학기 3, 여름학기 2, 가을학기 3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 MPA는 2년 과정에 맞춰 과목을 설계하므로 1년 동안 이수완료하기 위해서는 과목 선

택의 여지가 많지 않음

- 또한 International students에게는 학기당 온라인 수업을 1개 이상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더 적음 (코로나로 인해 2021년 가을학기는 예외적으로 허용)

- GMP 학생의 경우 인턴십은 면제되고 1년 동안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나,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허용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음

- 미국인 교수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행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많으므로 미리 미국의 정치, 역사, 정부 구성 및 역학 관계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미주리 대학 기숙사는 캠퍼스 내에 있는 Residential Life와 캠퍼스에서 차로 5분거리에 있는 Tara apartment가 있음

- Tara apartment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2개, 욕실1개, 주방, 거실로 되어 있고, 세탁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월 렌트는 600불 정도로 저렴함

- GMP 학생들은 기숙사보다는 Rock Bridge, Wind River에 많이 거주

- 코로나로 인해 학교 식당 이용은 거의 없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1) 그룹 활동

- 대부분 과목은 발표, 토론 등 그룹 활동을 포함하므로,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필요

- GMP 학생들은 같이 그룹을 만들기도 하나,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접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됨

(2) 영어 프로그램

- ELL프로그램은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후 레벨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력보다는 원하는 일정에 따라 반을 편성해 줌

- 이외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이들을 통해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가 가능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KDI School을 거쳐 GMP로 MP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미 한국에서 영어 수업에 대해 익숙한 상태이므로 처음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이점이 있음

- KDI School에 비해 더 많은 자료를 읽어가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더 큰 것은 사실임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국제운전면허는 입국 후 1달 동안만 유효하므로, 도착 후 바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 현지 운전면허를 따면 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낮아지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GMP는 F나 J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J비자가 F비자보다 심사 통과에 더 유리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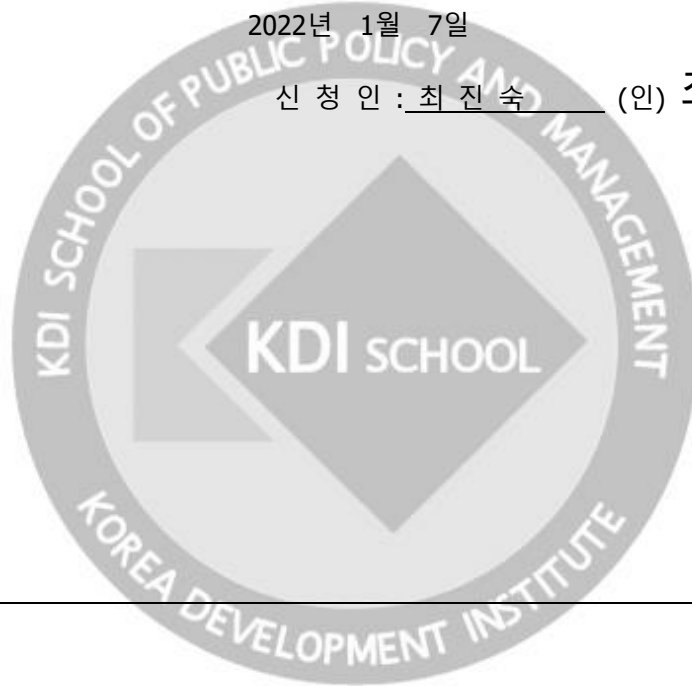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개인의 적극성이나 노력에 따라 1년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교과, 영어, 문화 교류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를 바람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7일

신 청 인 : 최 진 숙 (인) 최 진 숙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민석	학번	
이메일	oasis-19@hanmail.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	(국가) U.S
기 간	2021.1 ~ 2021.12	[귀국일: 2021년12월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5일

신 청 인 : 김민석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주리 콜럼비아는 미주리주의 서쪽 끝 캔자스시티와 동쪽 끝 세인트루이스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10만명이 조금 넘는데, 미주리주에서는 4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콜럼비아의 기후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제가 있었던 2021년이 특수한 케이스였는지는 몰라도 3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고, 12월에 20도 이상의 따뜻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생활권 내에 대형 마트와 병원 등이 여러 개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면 생활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부족합니다.

콜럼비아 생활을 시작할 당시 저희 아들은 만 3세였는데, 주변에서 추천해 준 daycare 중에 거리와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지 않아 주 2회, 오전 2시간만 2월부터 6월까지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콜럼비아 시에서 운영하는 summer school을 보냈습니다. 9월부터는 집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daycare로 옮겨 12월까지 주 5회, 오전 4시간을 보내며 매달 약 600불을 납부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녔던 곳은 한국에 비해 선생님들의 스킨십이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아이와 저희 부부 모두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백신이 연초부터 보급됐지만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이라 온라인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학교 규정상 학기당 최소 1과목 이상은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님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과 대답은 수업시간에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과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교수님에 따라 강의의 질도 상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셨던 교수님들의 수업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저 같은 경우는 봄학기에 3과목(9학점), 여름학기에 2과목(6학점), 가을학기에 3과목(9학점) 등 총 8과목(24학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름학기는 의무가 아

니기 때문에, 봄학기 와 가을학기 만으로 24학점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대학원 측에서 여름학기에 최소 1과목 이상 듣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수강신청은 어드바이저와 상의해 진행합니다. 매 학기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조합해 어드바이저에게 수강신청 초안을 보내면, 어드바이저가 검토 후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해 주는 식입니다. 봄학기의 경우 저는 경제학, 정책과정, 지방행정을 수강했는데 모두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학기는 공공행정이슈, 지역개발을 수강했습니다. 여름학기 강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교수님이 강의를 업로드하고 과제를 내주시면, 일주일 중 편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을학기는 비영리기관, 리더십, 민주주의 과목을 수강했는데 한 과목(비영리기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 중 시험을 치른 것은 경제학, 비영리기관 두 과목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개 과목은 과제를 통해 성적이 정해졌는데, 과제의 양이나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는 KDI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저는 듀플렉스 구조의 집에 750불을 주고 거주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단지들도 많은데, 이 경우 집 수선, 잔디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법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인 개인이 소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잔디관리 등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좀 더 있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고기를 비롯한 식자재 값은 한국에 비해 저렴합니다. 반면에 식당에서의 식사는 별도로 세금이 붙고, 팁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비쌌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미국 식당의 음식들이 입에 잘 맞지 않아 주로 집에서 해먹었는데, 각종 육류와 샐러드 위주로 식단을 주로 구성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콜롬비아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수시로 여행을 다니시지만 소위 말하는 여행 대목은 봄방학(약 1주일), 여름방학(약 2달, 여름학기 수강 시 약 1달), 추수감사절 연휴(1주일), 연말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스칼라 분들은 미국의 주요 지역들을 여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지역은 일반적으로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 등의 남부, 엘로스톤과 그랜드캐년 등의 서부, 시카고, 뉴욕 등 동부 등입니다. 미리 계획을 짜두시는 게 예약 등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를 가려고 한달 전쯤 예약을 시도했는데, 그 때도 예약이 다 찬 곳이 있어 원하는 곳을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제가 콜럼비아에서 지낸 2021년에는 KDI에서 학위과정으로 오신 분이 저 포함 네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수강신청을 해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미국생활의 정보 등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 수업방식이나 과제의 난이도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KDI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저의 경우 J1비자를 받았습니다. 미주리대학 아시아센터에서 F1 대신 J1으로 내주셨는데 그 둘이 무슨 차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F1 비자의 경우 SSN(social security number)가 발급되는데 J1의 경우 SSN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하고자 할 때 등 가끔 SSN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의 경우 먼저 다녀오신 분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미국에 들어갈 때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격리도 의무는 아니었지만 계좌개설, 장보기 등 필요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간 외출을 자제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 출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서류작성, 자가격리 앱 설치 등 방역관련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열흘간의 자가격리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코로나 상황은 미국전체의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병상이 여유로운 편이라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콜럼비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놀이터 등 야외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월마트나 샘스클럽 같은 마트에서도 백신접종 이후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daycare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 통틀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콜럼비아에서 보낸 1년은 충분히 좋은 기억이었지만 후회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관련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스칼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미주리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랭귀지 파트너 프로그램, 발음교정 수업 등을 진행합니다 (배우자들을 위한 스파우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럼비아 시 정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상씩은 들었지만 이와 별도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외국인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며 영어를 향상시킬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